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은 10월 나라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예배당 진입문 변경: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 쪽 출입문 닫고, 반대편 쪽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11월 7일 토요일)
- 오병이어 모금통에 관심 가져 주세요.
- 매일성경 11,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 전출: 이해령(→다름슈타트)
- 생일: 민지음, 주아름, 박하린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주일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총 7인 위원회) ☞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그룹별 모임

◆말씀일기 일정

일/약2:1-13	월/약2:14-26	화/약3:1-12	수/약3:13-18
목/약4:1-12	금/약4:13-5:6	토/약5:7-12	일/약5:13-20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91독 (전소현 1독)

◆ 예배위원 안내 ◆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예배기도	백윤정	최수정	서영지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김대진 임나원		장혜진 강일구	
애찬위원	밥상 하나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 68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286장	다 함 께
기도/Gebet		백윤정 권사
찬양/Chor	힘한 시험 물 속에서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야고보서 2:1-13	인 도 자
설교/Predigt	행동하는 믿음의 첫번째 시금석.....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221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박승은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샷21:13-25 '제 멋대로 신앙' ◀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된 형편을

전쟁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말인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쟁 후에 후회했다는 말인가?

어쨌든 그들은 '대성통곡' 한다.

하지만 '제 멋대로 신앙'은 거둬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즉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괴이한 일을 행한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의 짝을 지워주기 위해,
총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처녀만 남겨 놓고 다 진멸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처녀들을 납치해 가도록 한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눈물과 전쟁, 납치로 범벅이 된 '종합슬픔세트'다.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웃니엘이 현숙한 아내인 악사를 아내로 맞아
풍요롭게 사는 모습으로 시작된 사사기가 끝에 와서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25)한 결과이다.

교회와 민족을 다시 생각하며 더욱 간절함으로 노래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 지난 주 봉헌 내역(10월 11일-10월 17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한정우, 단주현, 유근임, 서연주 백능현, 한상철, 무명1	양순이	최수정, 권순아(추수)	김한진(장학)
총액 2.221,60유로 = 971,60 (예배당) + 1.250,00(온라인)			